

# 한경 BUSINESS



스타 세프 에드워드 권의 새로운 도전  
전세난으로 본 내집마련 타이밍 잡기  
'인기 급상승' 단독주택의 허와 실

한경비즈니스 · 한국신용평가정보 공동 선정

## 2011 KOREAN SUPER COMPANIES



### '한국판 베벌리힐스' 서판교의 비밀

김앤장 vs 삼일회계법인이 한판 붙은 내막  
차병원 그룹·황영기·변양균 사이에 무슨 일이?  
미국 비즈니스맨들이 '링크드인'에 빠진 이유

값 3,500원



한국경제신문



중국판 나스닥 '창업판'

# 220여 개 상장... 시장 시스템은 불안

최정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상하이대표처 수석대표

지난 2009년 10월 말 중국 선거거래소는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創業版, ChiNext)의 닷을 올렸다. 창업판은 2009년 10월 30일 28개의 기업이 상장하면서 거래가 시작됐다. 창업판에 상장된 회사는 올 4월 14일 200개를 돌파했고 6월 3일 현재 224개로 급증했다. 창업판은 상장회사 규모와 세간의 관심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창업판에 상장(4월 14일 기준)된 200개 기업의 상장 당시 평균 주가수익률(PE)은 69.7배다. 신옌(新研)

이지 않는다. 우선 창업판 개설 취지에 부합하는 회사들이 상장됐느냐 하는 의문이다. 주로 기술 주도형 중소기업이 창업판에 상장됐지만 내실을 살펴보면 경영관리 체계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회사들이 꽤 있다. 더구나 성장성에 의심이 가는 몇몇 회사가 창업판에 상장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회사, 설립된 지 30여 년이 지난 회사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이다. 창업판에 상장된 회사가 단지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주판(主版, Main Board)에 상장된 회사와 차이가 있을 뿐 질적인 측면에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판 시장 시스템의 불완전성이 문제다. 주가가 높고, PER가 높고, 자금 조달 규모가 기업의 본질가치에 비해 훨씬 크다는 이른바 '삼고(三高)' 현상이다.

이런 면에서 창업판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출범 1년 반밖에 안 된 창업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좀 이른 감도 없지 않다.

### 노루그룹이 지분 참여한 상하이KNT 상장

최근 한국계 외상 투자 기업이 창업판에 상장됐다. 페인트 제조업체인 노루페인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노루그룹이 2대 주주로 투자한 자동차 도료 생산 기업 상하이 KNT가 5월 31일 창업판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상장을 목표로 한 것은 많지 않다. 이는 상장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장 대기 중인 중국 기업들이 많은데 과연 외상 투자 기업인 한국계 투자 기업을 차별 없이 상장 심사할지, 상장을 위한 회사 조직 개편이 제대로 비준될지 등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상하이KNT 상장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진리타이 회사의 1대 주주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대 주주가 외국 기업인 회사가 상장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칠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중국의 나스닥인 선거거래소의 창업판에 주로 기술 주도형 중소기업 주식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주식회사는 PER가 150.82배였고 10여 개 상장회사의 PER는 100배를 초과했다. 200개 상장회사의 공모 금액은 1554억 위안을 넘었다.

창업판에 상장된 회사의 주가는 상장일에 평균 40% 올랐다. 진야(金亞)기술의 주가는 상장 당일 209.73% 올랐고 10여 개사의 주가는 100% 이상 올랐다. 물론 상장일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한 회사도 4월 기준으로 19개사나 되며 이 중 15개사가 올해 공모한 회사다. 또 창업판 회사의 시가총액이 8000억 위안을 웃도는 등 짧은 시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창업판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